

癸巳年 太師廟 正謁禮

계사년 태사묘 정알례

지난 2월 12일 화요일 음력 정월 초3일 오전 10시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삼성(三姓), <권씨(權氏), 김씨(金氏), 장씨(張氏)>의 후손(後孫)인 김광림(金光琳) 국회의원과 권영세(權寧世) 안동시장을 비롯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사년(癸巳年) 정알례(正謁禮)를 올렸다. 이날 권오익(權五翼) 태사묘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의 집례로 권기덕(權奇德) 김낙년(金珪年) 장태수(張太守)씨가 각각 자기 조상께 분향(焚香) 헌작(獻爵)하고 밖으로 나와 후손 모두가 함께 재배(再拜)하는 것으로 정알례(正謁禮)를 마쳤다.

정알례(正謁禮)를 마친 후 숭보당(崇報堂) 앞뜰 잔디밭에 둘러서서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차(茶)를 마시기도 하였다.

답소를 나누는 가운데 김광림 국회의원과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주사(廚舍)를 보수하여 관리사무소로 활용함도 좋겠다는 건의를 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념촬영(記念攝影)을 하고 모든 행사를 마쳤다.우리 안동권씨는 권영세 안동시장과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를 비롯한 20여명과 권순갑(權純甲) 대종원사무부총장이 준비



△안동태사묘에서 정알례를 봉행하고 있다.

한 주과포(酒菓脯)를 가지고 안동시 서후면 능동으로 이동하여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 묘소에는 권영세 안동시장이 낭중공(郎中公) 단소에는 권태원씨가 분향(焚香) 헌작(獻爵)하고 함께 재배하는 것으로 정알례(正謁禮)를 모두 마쳤다. 모든 행사를 끝마치고 안동시 평화동에 있는 정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헌담(獻談)을 나누다가 산회하였다. <報道部長 權寧健>



△안동태사묘우에서 삼성(三姓) 권氏, 金氏, 張氏 후손들이 정알례 봉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좌측으로부터 여섯번째 김광림 의원, 옆에 권영세 시장)

財團法人 陵洞獎學會 理事會 開催

篤志家の 獎學金 獻誠으로 後學育成에 寄與하자!

재단법인 능동장학회(이사장 권정달)는 지난 2월 7일 이사 5인 감사 2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 110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권경석 사무국장은 성원보고와 2012년도 결산보고를 하였다.

본회는 이사 결원에 따른 권오영(權五泳) 부총재를 추천하여 이사 선임을 승인하였다.

결산보고는 지난해 장학생 연인원 15명에게 장학금 1500만원을 지급하여 누계 1,209명에게 4억 3천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3개 과총회 4개 중친회 그리고 세명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모두 지급 완료하였다.

2013년도 예산안은 1,500만원을 책정하여 15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자금의 한정으로 과총회, 중친회를 순환하여 추천을 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우수학생에게 제한하고 있다.

재단법인 능동장학회는 1974년 12월 5일 謹啓 權承烈公(법무부장관 역임)께서 출연하시어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장학회를 설립하고 권문의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그 이후 기본재산을 점차 증액하고 2006년 權弘河, 松成, 寧鮮, 寧福, 泰旭씨 등이 총 5천만원을 헌



△2월7일 퇴계로4가 신차이나에서 능동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토의를 하였다.

성하여 기본재산 2억 5천만원으로 증액하였다.

2008년 10월 권승열 장학회실립자께서 기증한 포천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세를 지불하고 2억 5천만원을 장학회에 증자하여 현재 기본재산 5억2000만원이 되었다.

그동안 기금을 제일금융권에 예치하여 연리 약 5%이상의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현재는 3%로 저금리시대에 돌입하여 수유에 충당하기 부족한 실태에 와 있다.

장학재단의 명색을 거양(學揚)하려던 기본재산 10억원은 출연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권문을 위해 독

지가(篤志家)들이 큰 마음으로 장학금을 쾌적(快擲)해 주셨으면 크나큰 보탬이 되고 본인 누대(累代)로도 영광(榮光)이 될 것이다.

거년에 권가의 부자(기업인 등)는 학교재단에 수억원을 기부한 바 있는데 우리 안동권에는 기부한 바가 없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기업인이 있는데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 기사를 보시고 각별한 애족심을 베풀었으면 한다. 재산이 많지 않은 분이라도 십시일반으로 쾌척해 주신다면 문사에 길이 빛날 것이며 일정액이 모이면 증자하여 장학금 운영에 원활을 기할 것이다. (편)

안동성소병원 권정달 이사장 취임

10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안동성소병원은 20일 오후 2시 병원 신관 10층 은하홀에서 <제11대 권정달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를 성대하게 거행 하였다. 이날 취임 감사예배는 안동성소병원 명예 이사장인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김관용 경북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김광림 국회의원, 이한동 전 국무총리,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 김휘동, 정동호 전 안동시장,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권영진 전 국회의원, 권택기 특임차관, 안동권씨 총재단, 목사, 도의원, 시의원, 병원 임직원, 안동권씨 중친회원, 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했다.

김삼환 목사는 인사말에서 "1909년 조그맣게 시작한 안동성소병원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등 총 40개 항목에 대해 안동지역에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 받은 종합병원"이라고 말한 후 "국회의원 3선,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낸 권정달 총재를 신임 이사장으로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정달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이 믿고 이사장이라는 중임을 맡겨준 김삼환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후 "1900년대

중반 병원 경영이 어려운 위기에 놓이자 김 목사님과 서울 명성교회에서 경영을 맡은 후 더욱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며 그동안 노고에 경의를 표하였다.

권 이사장은 이어 "오늘 취임을 계기로 안동성소병원 임직원 모두는 병원 설립 목적인 의료 선교 사명을 다 하고 지역민들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김광림 국회의원, 이한동 전 국무총리,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이 축사를 했는데 모두 권 이사장이 취임한 후 성소병원의 발전과 밝은 안동의 미래, 나아가 국제 병원으로 성장할 것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축사가 모두 끝나자 권영대 성소병원장은 참석한 내빈들을 소개했으며 예방총합중경총회장 이광선 목사의 축도로 취임 감사예배 후 기념촬영을 하고 다과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헌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해산하였다. 이날 병원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우산과 타월이 함께 든 선물세트를 전하기도 했다.

<대중원 보도부장 권영건>



△2.20일 안동성소병원 이사장 취임 기념촬영



△좌상:권정달 이사장 인사 / 우상:김관용 도지사 축사

△좌하:김광림 의원 축사 / 우하:권영세 시장축사

행주대첩 제420주년을 앞두고!

안동권씨대종원은 2월 13일 '권을부대'를 찾아 행주대첩제를 앞두고 제반 행사를 사전 부대와 협의하게 되었다.

오후 2시경(권경석 사무총장, 범준 홍보부장, 권영범 총장공의회장) 일행은 권을부대(이 장군)의 영접을 받고 휘하 참모진을 소개받은 후 접견실에서 관계참모와 배석하여 환담으로 이어졌다. 먼저 부대장은 "안동권문(權門)의 대종원 일행 부대방문에 대하여 전 장병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한 후 역사와 전통을 빛나는 '권을부대'의 부대소개를 브리핑하였다. 이어 본원 경석 사무총장은 "안동권씨대종원 권정달 총재를 대신하여 우리 선조님의 거룩한 위업의 성전(聖戰)을 지켜주는 권을부대의 부대장님 이하 전 장병에게 100만 권문거족을 대변하여 선조님의 위업을 더 높이 받들어 준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致賀)드립니다" 격려 하였다. 다가오는 제420주년 행주대첩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이곳 권을부대는 최초 2002년9월1일부 부대장직 명칭이 비호부대에서 권을부대로 개칭되



부대현관앞에서 기념촬영, 부대장 이동재장군, 권경석 사무총장, 권영범 도원수회장, 권범준 홍보부장

었다.

개칭은 현 부대의 특성과 서울사수와 조국수호의 성전을 받들기 위해 행주대첩의 입란유전 영웅인 권을도원수님의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본분(軍人本分)의 역사 속 실

존인물을 권을장군의 군인정신 구현을 계승하는데 두었다. 즉 "책임 지역 내 서울사수의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행주산성과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을 주도한 총장공 권을도원수를 비롯한 장병들의 숭고한 위업을 계승, 대한민국의 심장 부인 서울을 수호하고 나아가 조국을 수호하는데 최선봉이 될 것임을

다짐하기 위해 권을부대로 개칭한다" 따라서 부대의 결의는 "우리는 행주대첩의 위업을 계승하여 서울사수와 조국수호의 선봉이 된다."라고 하였다.

사단 현관에는 총장공 권을도원수의 당시의 결전을 결의하는 친필이 있다.

"이름고 이름지 않음을 시운(時運)이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 일뿐인 것입니다.

오후라, 북길 의주로 파란한 입김의 행재소를 수호하는데 최선봉이 될 것임을 <3면에 계속>

始祖. 郎中公 春享祭 案内

太師公 郎中公 春享祭를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追遠報本の 精誠으로 많이 參祀바랍니다.

- 日時: 2013년 4월 5일(금)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까지
- 場所: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번지
- 大堂會: 2013년 4월 4일(목) 오후 7시

※ 연락처: 02-2695-2483/4 (대중원 사무소) 054-854-2256(안동사무소)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權正達

행주대첩 제420주년 참제안내

3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의 총장사에서 행주대첩제가 아래와 같이 거행되오니 많은 참제를 바랍니다.

◆제전행사

- 제례진행: 9:30~10:30분(총장사 제전위원회)
- 헌화분향: 권을부대장 10:40~11:00(권을 도원수 동상 앞)
- 교통편: 대중교통→종로3가 3호선 승차→화정역 하차→마을버스(01번, 012번)/일반버스(85-1)→행주산성 / 자가용→강변북로 방화대교 아래지나 우측으로 나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행주산성 ※ 연락처: (031)8075-4643, (031)8075-4640(고양시 행주산성 관리사업소)
- 신기전발사시연: 대중원 총재, 권을 부대장 (11:20~12:00(행주산성공원))

2013년 3월 1일
안동권씨대종원

安東權氏宗報 宗是: 崇祖理念確立·愛族思想鼓吹 後學啓導寄與·社會倫理培養

발행인 權正達 편집인 權景哲 인쇄인 權寧雄

발행주소: 安東權氏大宗院: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5-3(2층)
우: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安東事務所: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418-1(3층)
우: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054)854-2257
태사묘 연락처: (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編輯委員	권계동, 권오복, 권혁재
記者	권범준, 권혁세, 권영길, 권오인
자문위원	권정달, 권영한, 권태하, 권영실, 권오창

예금주 및 계좌번호(안동권씨 대중원)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중앙총회) 농 협 076-02-247343

종보사(개인독자)
유체국: 종보사
010108-01-000369